

# 한국 전통혼례복에 나타난 색채의 특징 연구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lors in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 focusing on Chosun Dynasty -

양은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Yang, Eun-He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윤형건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교수

Yoon, Hyung-Gun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key word:**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Korean Traditional Standard color, yin-yang.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대로 인간은 참다운 삶의 도리를 행하기 위하여 예(禮)를 필요로 하였다. 예는 유가(儒家)만이 갖는 특징으로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동양의 역사왕조에 의해 국가 이념으로 채택됨에 따라 예학은 그들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에도 유교인 주자학이 기본 강령으로 주자가례의 준행(準行)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도 조선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의 미(美)는 이들과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이루어 졌다. 사례(四禮) 즉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사람이 태어나면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 의례이다. 그 중에서 혼례는 가장 기쁨이 가득한 의례로 다채로운 색채가 화려하다. 그러한 영향은 오늘날에도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다.

동양에서 음양오행사상은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음양오행사상은 중국에서 시원(始原) 되었지만 한국으로 오면서 토착화가 되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태극사상에서 그리고 단청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토착화 되어가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오늘날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한 한국의 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찾고 고부가가치의 문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되고있다. 한국의 국적 있는 무엇인가를 찾을 때는 의례 오방색을 떠올리지만 조금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이론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하얀색과 검은색이 색채일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늘 풀리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시작되어 한국 색채의 특징을 연구하게되었고 이후 한국단청에서 농도의 미의식(美意識)을 발견하여 연구의 실마리를 얻게 되어서 오래도록 궁금했던 질문에 답을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목적은 첫째 한국 전통색채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사상이 토착화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한·중·일의 혼례복과 단청을 일 예로써 비교하여 한국혼례복에 나타난 색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오방색하면 투박하게 느껴지는 이유와 동양적 사고에서 하얀색과 검은색이 색채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 2. 이론적 배경

한국의 색채는 우리 고유의 민족적인 색채관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우리만의 색채문화를 가진다.

### 2-1. 음양오행사상

오행이란 우주에 편재한 에너지의 근원이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사상이다. 음양은 생성원리의 근본이며 존재질서의 상징관념이다.

방위의 색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저마다 고유한 사상에서 비롯된 방위색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관련된 사상적 배경이 오방색의 경우처럼 반드시 체계적인 철학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저마다의 신화 혹은 설화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색의 변화를 관찰하여 방위색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것에 속하는 빨강 노랑 파랑의 3색은 지금의 색채학에서 말하는 3원색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원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인류의 자연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을 중심으로 하는 음양오행에 의한 방위 색은 인류의 보편적인 방위색의 구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sup>1)</sup> 다만 한국의 경우는 일관된 사상체계에 따라 그것이 생활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철저히 반영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2.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四神)은 전국시대에서 진한시대에 걸쳐 정착된 것으로 보이고<sup>2)</sup> 동(東)청룡(靑龍), 서(西)백호(白虎), 남(南)주작(朱雀), 북(北)현무(玄武)이다.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우주의 질서를 진호(鎮護)하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동물이 다. 그리고 그것은 오행사상과 함께 발달해 왔다.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토착화되는 처음단계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사신도는 오행사상과 태극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 2-3. 태극사상

태극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들어있다. 태극기는 음양의 철학에 의해 만들어 졌다. 세상의 모든 삼리만상, 우주만물(宇宙萬物)을 양극화된 이분법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으나 단순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음양이다. 이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항상 대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적인 양극론 관계를 조화되게 이루어 내는 것이 태극에 잘 나타나 있다. 각기 다른 성격의 관계를 자연 친화

1) 전통문화 동호회"천년의향기 <<http://www.chonhy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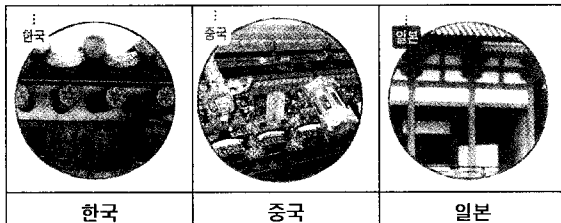
3) 김경자, 앞의 책. p93

적이며 순환의 법칙에 순응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주돈은 태극도설(太極圖說)을 통하여 태극이 바로 무극(無極)이며, 여기에서 음양이 생겨나고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무극(無極)에서 만물에 이르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주희의 성리학에 이르러 태극이 이(理)를, 음양오행이 기(氣)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만물의 생성과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후 이기철학(理氣哲學)의 전개에서 중대한 논점을 제공했다.<sup>3)</sup>

#### 2-4. 단청에 나타난 농도의 의식

단청에 나타난 색채의 표현은 어느 색상이든 그 농도의 진행 과정이 백색과 흑색 사이에서 가장 짙은 초빛 그 다음으로 진한 이빛, 그리고 가장 연한 삼빛으로 채색되어 있다. 빛의 단계로 초빛, 2빛, 3빛의 순으로 나열되며 최대 4빛까지 구분할 수 있다. 2빛 앞에는 백선으로 3빛 뒤에는 먹선으로 마감한다. 따라서 3빛으로 할 경우 5단계로 구분된다.

이 같이 색을 분해한다는 의미에서는 서양 인상파의 색광분해를 연상할 수 있겠지만 서양인상파의 색분해가 명암(明暗)에 의한 것인데 비해서 한국의 단청분해는 명도가 아닌 농도에 의한 경향태 라는데 차이가 있다. 단청은 꽃, 과일, 인물 등의 온갖 사물의 형태를 빌려서 표현되지만, 단청 표현의 목적은 우주 속의 기(氣)가 쉬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있다. 불식(不息)을 나타내는데 있다.<sup>4)</sup>



< 그림 5 > 한·중·일 단청

각 나라의 단청의 색을 보면 뚜렷한 민족의 색채관념을 엿볼 수 있다.

#### 3. 혼례복에 나타난 한국의 색채

한국색채는 의미론적 상징 색채이며 그 근원은 우주의 원리와 세계관의 구성에서 출발한다. 그 출발은 도교의 태극도설, 유교의 도참사상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 음양오행설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색은 학문적인 면, 심리, 인문, 사회과학적 및 자연과학과 예술의 전 분야에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오방색은 단순히 5가지색을 의미하지 않고 광범위한 색상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색과 잡색에 이르는 다양한 색상으로 생활전반에 활용되었다.

색 자체만의 의미뿐만 아니라 음양의 원리에 따라 몸의 상반신은 양이고 하반신은 음이라는 '의정색 상간색(依正色 裳間色)'과 양상음하(陽上陰下)가 있고 색의 조화에 있어서도 명상음하(明上陰下), 경상중하(輕上重下), 온상냉하(溫上冷下)의 상징성을 적용한 원칙을 복색의 기본으로 삼았다.

색채배색의 조화 이외에도 안감과 겉감의 배색의 조화가 있다. 겉감만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안감과 겉감의 색상이 조화되도록

의미를 두어 만들었다. 저고리의 안감과 겉감 치마의 안감과 겉감의 색이 서로 상생(相生)하는 의미의 색으로 배색되었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 색의 조화로움은 빛에 의해 색상이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3원색의 균형과 질서이다.<sup>5)</sup>

동양사상의 중심인 음양오행설은 중국에서 생성된 사상이다. 그러나 한국 오방색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오행사상에 나타난 상징색들을 색동과 같이 골고루 다양한 배색으로 경쾌하고 순수한 모습을 대변하여 색채를 사용했다. 반면에 음양오행 색채의 근원인 중국에서는 번영이 연상되는 색이면서 권력과 위압감이 느껴지는 색인 황색을, 기쁜 색이며 영혼불멸의 색이며 태양의 색인 붉은 색을 선호하고 '허무함'이라든가 '충일감이 없는 색' 슬픔의 색으로 간주하는 백색은 회피하였다. 중국인들은 오방색을 골고루 즐기며 사용하지 않았다.

본인이 오래도록 궁금했던 질문인 검은색과 하얀색이 색깔일까 아닐까? 한국의 오방색은 왜 이렇게 촌스러운가... 그것은 서구중심의 미술교육으로 인한 美感과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과 혼돈이었다. 우리가 오방색이 촌스럽게 보이는 것은 많은 시간의 흐름으로 오래된 유품 속에 빛 바랜 색채의 조합을 감상했기 때문이다.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색은 서구의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색채관, 즉 빛의 파장차이에 따라 눈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인 것보다는 곧 각(覺)이라고 정의하였듯이 한국인의 색채사용에 있어서는 감각적이라는 것이 중요시되지 않았다. 흰색과 검은색이 무채색이라는 것은 서구중심의 미술교육에 의한 지식이고 한국의 색채미감으로는 자연 속에서 색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이 흰색과 검은색은 유채색(有彩色)의 가짓수에 해당이 된다. 단청에서 알 수 있듯이 색의 구분은 명암의 구분이 아니라 농담으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색채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먼저 검은 혼례복이다. 단청의 색채가 흰색에서 시작해서 검은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임금님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복(祭服)도 역시 검은색이다. 한국은 검은색이 흉조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늘의 색으로 여겼다. 따라서 귀한 색이고 권위 있는 색이다. 그래서 혼례복으로 일부 양반들만 시행했지만 신랑신부와 참석하는 모든 하객들도 검은색 예복을 착용했다. 다음으로 녹색이 오방색에는 없다는 점이다. 하얀색이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는 것이 곧 황색이듯 녹색은 청색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 자연스럽게 녹색이 되기 때문에 오간색에 속하는 색이다.

#### 4. 결론

禮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 복식이고 또한 모든 행동에 앞서서 의관을 정제하여야 하는 것은 예의 가장 기본이다.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울긋불긋한 색채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잠재해 있어서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은은한 색채를 착용하고 관혼상제와 같이 일생에서 중요한 의례에서는 고명도(高明度)이면서 색상이 진한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여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이탈시키고 기념의 의미를 증폭시켰다. 상충과 하충이 공유하는 혼례복식 속에 나타난 한국의 색채특징은 자연환경과 같이 청명하며 화려하고 철학적인 색채임을 알 수 있다.

3) 김경자, 앞의 책 p227

4) 趙要翰, 『韓國美의 照明』, 열화당, 1999

5) Mary c. Miller, 박영순역 『실내건축의 색채』, 2000, 교문사